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### 금융청, 증권세제 우대책 3년 연장

- 금융청은 상장주식의 배당금과 양도이익에 대한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증권세제 우대책을 3년 더 연장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함.
  - 증권세제 우대책은 상장주식의 배당금 및 양도이익에 대한 세율을 기존의 20%에서 10%로 경감시키는 대표적인 주식시장 부양책 중 하나로, 2003년 첫 시행 이후 연장을 거듭한 끝에 내년 말 최종 만료될 예정임.
  - 초저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금에 집중되어 있는 가계성 금융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 주식매매 거래량 증가와 주가 하락 방어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.
  - 이에 금융청은 현행 증권세제 우대책을 2014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, 2011년 세제 개정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여론 수렴, 국회상정 등 일련의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임.
  
- 증권세제 우대 연장 조치에 대해 거액의 주식투자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, 전문가들은 현재 주식시장 급락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  - 집권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증권세제 우대책 연장이 자칫 소액 투자자들보다는 거액의 주식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공정한 세납 원칙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.
  - 그러나 엔-달러 환율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해외발 악재로 연초대비 최저 수준을 하회하는 등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, 현행 증권세제 우대 혜택이 만료되면 금융시장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임.

(FujiSankei Business I, 8/16)